

오피니언

光日春秋

임동욱



본격적인 경증이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한나라당 유력 대선후보간의 다툼이 날이 갈수록 접입가경이다.

하는 입장에서 상대방 공격이 허구라는 것을 반증함으로써 입지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려고 할 것이다.

야당 유력 경선후보간의 다툼

한반도 대운하를 시발로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국가정책성 등의 쟁점과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다시 대운하 평가보고서의 혼란조난 등을 대하는 국민의 마음은 혼란스럽기만 할 것 같다.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밝혀서 본선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할 것이다. 이 와중에 국민의 관심을 얻어 흥행의 성공이라는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잠시라도 고민해보면 지금의 현실이 답답하기만 하다. 이제라도 국가의 이익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한국대통령학연구소의 연구(2002)는 개인적 차원에서 대통령이 지나야 할 구체적인 자질로 비전제시능력, 인사관리능력, 위기관리능력, 민주적 정책능력 및 실행능력, 도덕성 등을 지적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하는 가를 분명하게 제시하여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겪은 지난 두 번의 대선패배는 바로 회고적 판단과 직결되고 있다.

회고적 판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전망적(prospective) 판단이다. 비전제시 능력은 전망적 판단을 제대로 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이를 강조하는 것은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강해지지 마련이다.

문제는 과거는 사실이기에 존재하고 있지만 미래는 불확실하기에 불투명하다는 점에 있다. 흔히 선거공약을 전망적 판단의 근거로 들어대고 있지만 장밋빛 미래가 전망이 아니다.

지금보다 진화한 다름 시스템이 만들어져 전망과 회고가 일관성 있게 연결되어야 한다. 전망이 회고에서 나올 수 있을 때 후보가 겪어낸 삶의 역정을 짚어보는 회고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자질 및 능력이 있다는 전망과 직결될 수 있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기아차 노조 17년 연속파업 제정신인가

기아자동차 노조가 지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28, 29일 양일간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17년 연속 파업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우며 회사는 물론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기아차 노조의 파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나 지역경제를 철저히 외면한 극도의 이기주의적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아차 노조는 27일 광주공장을 비롯한 화성·소하리 등 3개 공장 2만6천484명을 상대로 금속노조의 파업지침에 따른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57.8%가 찬성, 28일 4시간 29일 6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파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더욱이 이번 파업은 노조원의 복지향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정치파업'이어서 실망을 넘어 허탈감마저 든다.

이번 파업으로 기아차는 광주공장의 생산차질대수 1천300대, 손실액 207억 원을 포함해 5천400대, 72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한다. 특히 330여개의 협력업체도 생산라인 가동 중단 등으로 직격탄을 맞게 됐다.

회사 측은 노조의 파업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과거처럼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할 것이다.

광주 위상 드높인 세계여성평화포럼

광주세계여성평화포럼이 전야제를 포함, 사흘간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다. '여성의 문화와 인권'을 주제로 이번 포럼에는 전 세계 여성운동가와 학자 등 2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토론 결과를 토대로 28일 '광주평화선언'을 채택한다. 여성과 인권에 대한 메시지를 담아 그 의미를 전 세계가 공유하고 여성의 국제연대를 강화하려는 의지다.

세계여성평화포럼은 지금까지 두 차례 밖에 열리지 않은 국제행사다. 이번 행사를 광주·전남 여성단체들이 노력해 광주에 유치한 것 자체가 자랑스럽다.

광주여성평화포럼은 세계의 여성들이 폭력에서 해방되고 권익을 신장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여성의 인권은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폭력과 빈곤, 질병, 인신매매 등으로 시달리고 있다.

여성운동가들은 민주와 인권, 평화의 정신과 의미를 재조명하고 여성연대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과 다양한 문화 속에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폭력과 빈곤 퇴치 등 여성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광주는 지난해 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화씨를 개최한데 이어 세계여성평화포럼까지 유치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이러한 국제행사를 적극 유치해 광주를 '세계평화와 인권의 메카'로 확실히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정신과 의사 김홍식의 LA통신

오랫동안 밖에 있다 보니 우리의 단점들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시정 되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국의 단점과 미국의 장점만을 골라서 얘기하려한다. '반란' '천미' 식의 눈으로 보아주시 않기를 바란다.

많은 것들이 시정 되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국의 단점과 미국의 장점만을 골라서 얘기하려한다. '반란' '천미' 식의 눈으로 보아주시 않기를 바란다.

기고

박윤모



지난 5월 중국 심천, 태국 라용,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등을 둘러 주요 예술 축제와 문화기반시설을 견학했다.

등 다양한 이벤트가 실내외 무대에서 한달간 계속된다. 이 축제는 스페인·독일·루마니아 등에서 만들어진 우수 공연단을 선정해서 보여주고,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점이 돋보였다.

중국 심천에서는 연중 계속되는 민속 공연을 관람했다. 이 공연은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 5년간의 준비과정을 통해 만든 실내외 입체공연으로 유명하다.

특히 싱가포르 에스플라나드라는 현대적 공연장은 이 축제의 랜드마크를 분명히 보여줬다. 열대과일의 하나인 두리안을 얻어놓은 듯한 모양을 하고 있는 공연장은 1천600여석 규모의 콘서트홀, 2천석의 무대극장, 야외공연장 등을 갖추고 있는데다 최고급 호텔이 밀

축제도 진화해야 한다

광객들의 발걸음을 사로잡았다는 점에서 여느 국가의 민속축제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해있는 마리나베이에 위치해 세계적 인 문화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다. 광주도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형공연장, 멀티플렉스 등 공연·전시기반과 이와 연계한 음식·숙박시설을 구축해 종합적인 문화지구 안에서 축제를 열고 공연을 보고 먹고 마시고 잘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인위적으로 특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준비한 게 아니라, 파수원과 과일 시장 자체의 일상적인 모습을 축제의 하드웨어로 삼았다는 점이 특이했다. 과일전국인 라용 지역민들의 원형적인 삶 자체를 꾸밈없이 보여주는 자연스러움이 문화축제를 자극했다.

모름지기 지역축제는 지역민에게 활기를 불어넣고, 꿈을 줘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튼실한 디딤돌이 되면 말할 나위조차 없다. 축제가 끊임없이 진화해야 하는 이유다.

이곳은 남에게 간섭도 받지 않고 남을 간섭도 하지 않는 주이다. 무더운 여름에 밍크코트 입고 다니던, 추운 겨울에 비키니 차림으로 다니던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눈총주는 사람도 없다.

올 가을, 광주에서 제 88회 전국체전이 열린다. 같은 시기에 개최되는 총장으로 축제가 국민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들뜨지 않고 치밀한 기획으로, 아름다운 가을을 국민에게 전해주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운전면허증 복사본 지니고 다니는 것은 위법 행위

운전면허증이 필수자격증인 시대다. 주민등록증만큼 개인신분 확인 용도로도 많이 쓰이고 있고, 18세 이상이 되면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일상적이다.

시하면 공문서 위조뿐만 아니라 형법229조 위조 공문서행사죄에도 해당한다. 또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휴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전면허증은 공문서이다. 이 면허증을 일반인이 앞뒤로 갈라복사해서 실제 면허증과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다니는 것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지방경찰청장 명의 함포로 사용하여 문서를 제작한 행위'로, 형법225조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

면허증 휴대 의무 위반 시 범칙금 3만원에 내야한다. 증명서의 제시 요구를 받고 불응 시에도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벌, 벌점 30점을 받게 되고 계속되는 제시 요구에 불응 시에는 주거불명의로 간주되어 현행범으로 체포 될 수도 있다.

無等鼓

음주운전은 흔히 '달리는 폭탄'에 비유된다. 술에 취하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져 과속, 중앙선 침범 등 대형 사고를 내기 십상이다.

다. 호주처럼 음주운전자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는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월중 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운전하면 술을 마시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2배 가량 높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면 징역형에 처해지는 등 처벌도 강화된다.

음주운전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5년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04년에 비해 감소했으나 음주운전 사고는 2만6천460건으로 5.2%나 증가했다.

음주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측면이나 음주운전 사고는 2만6천460건으로 5.2%나 증가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외국이 훨씬 엄격하다. 핀란드는 한달 봉급을, 스웨덴은 연봉의 100분의 1을 벌금으로 부과한다.

음주운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외국이 훨씬 엄격하다. 핀란드는 한달 봉급을, 스웨덴은 연봉의 100분의 1을 벌금으로 부과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외국이 훨씬 엄격하다. 핀란드는 한달 봉급을, 스웨덴은 연봉의 100분의 1을 벌금으로 부과한다.

Table with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formation, including contact details and subscription rates.

미국에 오기로 결심한 이유

감기환자들 거의 항생제를 요구하는데 감기에는 항생제가 필요도 없고 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내성을 길러주어 오히려 해롭다고 설명하지만 아무 효력도 없고 오히려 손님만 잃게 될 뿐이다.

지 않는 한 모든 것이 자유롭다. 내과질환의 60% 정도는 정신에 기인한다고 배웠는데 실지 환자를 대하면서 보니 그보다 더 많은 80%쯤은 되리라고 느껴져 정신과도 전공 하였다.

부모-자식간 증여세 공제액도 부부간 만큼 늘려야

최근 우리 형제가 부모님의 고향인 해남에 집 한 채를 사드리려고 했다가 엉뚱한 문제에 봉착했다. 부모에게 집을 사드리는 것은 재산을 증여하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액수가 컸다.

세무사에게 물어보니 부부간에는 재산 증여를 할 경우 3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만 공제된다는 것이다.

▲성열봉·목포시 은금동

▲김승희·광양경찰서 중마지구대